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이 달 엮*

〈 요약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그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재, 법적 윤리적으로 천명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재활공학, 생활환경 개선,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이 마련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접근성, 의사소통과 같은 물리적 환경, 일반인의 의식 및 문화생활과 같은 사회적 환경, 그리고 교육, 훈련, 고용, 장애예방, 보건, 재활서비스, 보장구, 주거와 건강, 의료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장애인 정책과 재활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삶의 질에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함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본인 200명과 장애인 가족 138명, 총 338명에 대해서 일반사항, 지역사회 관련사항, 장애인 삶의 질 관련사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판단은 다분히 교육수준과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가족생활과 같은 주관적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하였다.

<검색어> 삶의 질(quality of life), 장애인식(perception of disability),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 conditions)

1. 서론

1. 조사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의 재활의 근간을 구성하는 장애인 서비스 패러다임 면에서 최근에 상당한 변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교수(ldy@daegu.ac.kr)

화가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서비스 패러다임은 전문가 주로 의사 위주의 의학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인을 환자로 보던 시설수용화인 제 1시기(1970년대 이전)를 거쳐서, 다영역적 팀 위주의 발달적·행동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인을 의뢰인 즉 서비스 대상자로 보는 탈시설 수용화의 제 2시기(1970-1980년대 중반)를 벗어나서, 제 3시기(1980년대 중반 이후)인 장애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시기로 규정되고 있다(Boggs, 1994; Bradley, 1994). 지역사회 구성원 시기로의 장애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장애인의 일반사회 통합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통합에 대한 개념은 정상화의 원리와 같은 철학적 믿음, 탈시설수용화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의 의무화와 같은 법률제정 등에 의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 왔다(Boggs, 1994).

심신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도 여타의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똑 같은 욕구와 인격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독특한 욕구와 잠재력에 따라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진정한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 같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코 경시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논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윤리적 권리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점차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그 구조가 바뀌고 있고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재활공학, 생활환경 개선, 체육 및 레크레이션과 같이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제 장애인의 양적 복지보다는 질적 복지를 논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장애와 그 가족의 적극적인 노력과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지역사회의 통합은 성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 통신, 접근성, 의사소통과 같은 물리적 환경, 일반인의 의식 및 문화생활과 같은 사회적 환경, 그리고 교육, 훈련, 고용, 장애예방, 보건, 재활서비스, 보장구, 경제생활, 주거와 건강, 의료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물리적 자원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물리적 환경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 건물, 시설, 도로, 설비, 이동수단, 기계 및 공구 등으로 장애인이 사회 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되고 사회통합에 일차적인 제약요건이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사로, 승용승강기, 대변기, 관람공간, 안내표지판, 주차장, 도로, 공원시설, 전용주택 건축물 개조, 필요시설 및 장비의 비치와 필요하며, TV의 자막수화방송과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배려와 설비가 요구된다. 사회적 환경은 이웃의 태도와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의 심리적 위축, 윤리, 도덕, 관습 등 오랜 세대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형태화 된 행위규범으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심리적 결합체로써 심리적 사회환경이 구성된다. 사회심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심리적 태도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회피, 직업거부, 거

주거부, 추방 등 여러 가지 차별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권도용, 1995).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설정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인의 복지권, 근로권,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제 접근권 (rights to access)에 관한 규정도 편의시설 설치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이러한 구체적 노력들은 장애를 지닌 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지니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은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 만들어지는 의존성을 조장시키는 복지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장애인들의 독립심과 자치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의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표적인 지역거주 장애인들이 모이는 장소와 가정에 대해 우편조사를 행하였다. 조사의 수행절차로 경상북도 지역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담당 직원이나 전문요원을 만나 조사 전반에 걸친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질문지 문항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장애인 본인들과 장애인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보호자들을 포함 시켰다. 보호자들의 경우 가구주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가까운 친척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2) 본 조사는 지역별 표본분포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 표본추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상북도의 북부도시 세 곳과 중부도시 한 곳, 그리고 남동부도시 한 곳을 선정, 2002년 2월에서 5월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도구를 작성하여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장애인 200명과 장애인 가족 138명 등 모두 338명이 조사되었다.

3) 질문지를 통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제작의 기존 각종 연구보고서와 문헌을 토대로 하여 조사영역을 설정한 개방식 질문과 Likert식 질문을 고르게 활용하여 조사 응답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조사 영역

본 조사연구를 위해 설정된 조사영역은 일반적 사항과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42개의 문항과 심리적 특성과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4개의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된 필요성·욕구 항목들과 관심항목들, 그리고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한 1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조사영역과 항목의 구성

일반적 사항	교육정도, 결혼 상태, 종교, 장애발생 시기, 장애 발생 원인, 법적 장애유형과 등급, 보장구 및 기기 사용여부, 가구의 특성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모름, 일차적 장애로 인해 사용보장구/기기의 종류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
사회적 특성	의료기관 이용 실태, 주된 여가형태, 사회 참여형태, 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형태와 만족도, 보건 실태, 지역사회 참여	영화관람 회수, 연극관람회수, 전시 및 관람회 참가회수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관리형태 라디오TV의 소유 및 이용상태 영양상태 장애진단여부 의료기관 이용회수, 의료욕구 충족도 종교, 정치, 사회, 장애인 단체 참가현황
경제적 특성	차량(자가용) 소지 여부, 재산 정도, 경제활동 상황,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비용내역, 본인의 빈곤 원인에 대한 지각, 가계비 보조원천, 이동성(이주 회수), 소득수준, 주거 형태	전문가, 고위임직원,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학생/재수생, 주부(집안일, 가사), 무직, 해당없음 (18세 미만), 자영업, 고용주, 상용근로자 (전일제), 상용근로자 (시간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급가족종사자 (가족 고용) 부동산, 동산, 현금 및 금융자산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대, 전용가옥의 크기 월평균 가계지출내역 (식품비, 교육비, 난방비)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수입원
심리적 특성과 인식	빈곤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태도,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각 정도, 욕구유형	부모 혹은 보호자 상실시의 대책 상담서비스, 교육기회, 편의시설 가정 및 심리적 스트레스의 해소방법 투표와 교통에 관한 욕구 고용과 직업 정책에 대한 욕구 (사적, 공적) 가족생활과 경제 빈곤원인, 자아와 자기개발 대인관계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영향

장애는 생애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개인이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을 위협함으로써 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어느 정도의 변화들을 요구한다. 종종 신체장애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장애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고 보기보다는 장애의 심리적 혹은 사회심리적인 파생물들로부터 일어난다

(McGowan & Porter, 1967).

이러한 장애문제를 고려할 때 환경을 따로 떼 내어 다룰 수 없으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장애심리학이란 심리학적으로 정상적인 유기체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자극에 이르기까지의 규준적인 반응들에 관한 연구이다. 장애의 신체심리적 (somatopsychological) 영향은 내담자의 동기화 (motivation) 및 재활수단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은 자아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의 평가 절하된 사회적 영향과 심각하게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에 관계하는 재활전문가들은 내담자가 직면하는 신체장애에 따르는 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해 기인된 개인의 기능적 손상은 낮은 삶의 질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며, 장애에 의해 부과되는 특수한 심리적 적응문제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은 장애를 대하는 장애인 본인의 태도와 장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습되고 구체적 경험, 접촉, 그리고 정보를 통해 형성되는 이러한 태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신념체계, 태도의 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체계, 그리고 외재적 행동, 신체 반응으로 표현하는 정서체계가 그것이다.

2. 장애에 대한 견해

하나의 장애라는 것은 개인이 지닌 장애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성하는 심리적 환경이 장애인을 거부하게 만들고 동시에 거부된 장애인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맛보게 되어 주류사회로부터 자연히 격리되거나 소외되게 만드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상동화된 사회의 거부적 태도는 학습되고 강화와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고착된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크게 그 개인의 심리적 및 생리학적 적응에 대한 잔여 능력에 달려 있다. 장애의 경우 같은 장애를 지닌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문제를 지니지 않으며,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이 지닌 장점들은 적절히 평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들 각각의 장애는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들에 달려 있다. 즉, 장애문제의 해결에는 그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장애로 인해 초래되는 제약의 정도에 달려있다. 1980년대의 후반에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인 Hahn (1988)은 새로운 접근방법 즉 사회정치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장애는 개인과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의료적 접근방법의 한계와 하나의 장애에 의해 부과되는 본질적인 제한점들은 장애인 개인의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직면하는 주변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시작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크게 개인적 결핍이나 결

함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는 환경 (disabling environment)의 결과로 간주된다.

사회정치적 견해의 두 가지 관점은 첫째, 환경에 의해 인간에게 부과된 기능적 요구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사회제도와 같은 강건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둘째, 환경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공공정책에 의해 형성된다는 인식은 공중의 태도가 장애인들이 싸워야 할 주위환경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접근방법의 소수집단관점 (minority-group perspective)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 중 많은 것들은 사회의 태도적 환경에서부터 기원을 찾는다. 소수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러한 원인은 지배적 다수의 우월한 사회적 가치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억압받는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된 문제는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지배적인 전제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다른 소수집단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전제는 일차적으로 편견적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이며, 종종 과거 미국의 소수인종 차별정책과 일본의 외국인 차별정책과 같이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3. 장애차별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면대면 접촉은 장애인과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 의해 어떻게 지각될 지에 대해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Bogdan & Biklen, 1977). 이러한 불안이 장애차별 (handicapism)을 초래하는데, 언어로 된 지시문과 공문, 그리고 사회적 구조물과 접근성의 정도가 중요한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을 때 장애차별이 된다. 장애차별은 재활에 대한 공식적 의무가 있는 조직과 제도 속에도 존재하는데, 법률, 규칙, 규정 등에 있어서 차별은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직업, 제외규정을 둔 교육,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된 장애인 프로그램,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서비스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전형적인 인구로부터 장애인구를 격리시키는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장애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① 미디어의 장애인상, ② 참여에 있어서 신체적 및 문어적 장벽, ③ 차별적 법률·규칙·규정들, ④ 기본적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제외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켈턴혹과 피터팬 같은 만화, 영화, 동화 등에 나타나는 미디어의 장애인상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폭력, 범죄, 공포 등과 연관되어 있거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화시키고 자선에 의해 장애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의존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이상으로 장애를 일반화한다고 본다. 가시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흔히 타인들에 의해 장애와는 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보다

매력적이지 못하고 무능하며, 소망이 없다고 간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신분 상실은 또한 경제적 결과들과 같은 장애의 간접적 영향으로부터 초래되기도 한다.

어떤 개인의 전반적 장애는 자신에게 특수한 요인과 그의 환경으로부터 나타난다. 이때, 문제들은 장애와 관계되거나,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 혹은 직업적 기능, 그리고 그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될 수 있다. 장애의 제거는 치료적 조치, 개인의 심리적 강화, 개인과 환경 양 측면의 조정 그리고 직접적인 사회 및 직업적 환경요인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의 선과 개인의 선이 균형을 이루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 내에서의 타인의 중요한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함이 없이 성취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장애 (handicap), 위험, 장벽 (barriers)들을 제거할 일반적 의무가 국가에 있다.

4. 장애인의 생활문화

우리나라는 문화생활에 있어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고려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일부 연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다루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은 거의 모든 연구와 정책에서 배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안이문, 1995).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적 혜택은 기껏해야 고공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나아가서는 문화여가생활은 장애인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흔히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뿐, 장애인들은 이러한 삶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며,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볼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장벽을 비롯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없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던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활동의 중요성은 최근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문화 및 예술활동이 단순히 개인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할수단으로서 더욱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안이문, 1995).

문화분야에서 장애인의 활동은 1982년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IYDP)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수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에 불과했다. 1976년 제 31차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IYDP 설정 취지에 적합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5월 보건사회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IYDP 한국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 등 40여 개 기관에서 150건의 기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개선,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교육홍보사업, 지원사업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이었다.

영화 관람, 음악, 화장술, 감상, 고궁 및 박물관 관람, 명승지 방문, 쇼핑, 여행, 레크레이션 활동, 오락, 육아 등과 같은 생활문화는 여성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택과 주거환경은 여성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도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문화 증진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주택과 주거환경이 여성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자유롭고 편리하게 개선된다면 주부로서, 또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여성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감, 기회에 대한 동기, 자기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장애정책의 중요성은 재활 전문가들에게 매우 명백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78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가정의 욕실, 화장실, 현관, 부엌의 개조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해 주고 있다.

5. 문화적 가치와 재활상담

재활 내담자들의 문화적 차이에 관해 재활상담사들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활상담사와 내담자간의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 바탕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활상담사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사들은 아직 그러한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민감성의 부족으로 인해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불평등적으로 서비스에서 거부되어졌고 상담사에 의해 잘못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들의 혼합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보다 상담사는 주류문화의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기초를 둔다.

한 문화의 구성원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특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함으로 부정적인 상동화된 양식이 생겨났고, 그러한 특성들은 모두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 탓으로 돌려졌다. 재활상담사들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상동화된 양식의 형성은 특별한 사회그룹으로부터 장애인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활상담사들의 그러한 상동화에 근거한 예상은 구두 또는 비언어적 언어 소통에서 행동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수집단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은 또한 상동화된 양식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현실에 노출되어 직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집단의 편견적인 태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강화된 편견적 태도는 상동화된 부정적 양식에 기초하여 회피행동에 대한 인지적 합리화를 가져오며 이것은 대다수 그룹과 소수그룹 사이의 접촉을 더 감소시킬 것이다. 특별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소수집단 사람들에게 상동화된 양식의 반응을 항상 조절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제안된 것처럼, 상동화된 양식에 영향을 받는 재활상담사들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는 편견적인 신념에 의해 발생하거나 편견적 신념과 부조화하는 성격·행동을 가진 소수민족과의 접촉에서 기초적인 대립경험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재활상담사들은 특별한 형태의 인식적 부조화와 연관된 걱정을 피하기 위해 편견적인 신념의 유효성을 훼손시키는 데이터와 관계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과 합리화와 같은 방어기전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사람들의 생각에 확실히 박힌 상동화된 양식은 소수집단의 장애인을 다루는 모든 재활상담사들에게 유효성이나 수용에 관한 결정을 어렵게는 하나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6. 장애인 취업과 문화 정책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관련된 문화복지는 매우 낮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문화라는 두 어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별 연관이 없다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중심의 시대로부터 문화우위의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것이며, 앞으로 문화에서 뒤진다는 것은 경제에서 뒤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을 전망이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재활전문가들은 적응을 개인이 최대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한 적응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비록 합리적인 접근일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따라서 어떻게 개인이 적응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잠재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중요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 심한 장애가 개인의 생활양식과 기능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 잠재력의 정확한 평가는 아주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듯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 자기 자신의 장점과 능력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사회, 직업활동에의 참여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능력이 제한되거나 변화될 때 역할과 사회적 관계들에 있어서의 변화 또한 일어난다 (Falvo, 1991).

장애인과와의 일상적 경험, 연구 그리고 이론적 공식화의 모든 것이 고려될 때, 장애에

대한 적응은 복잡한 듯 보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요 생애 위기에 대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경험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진보적이고 가변적이며 고도로 개별화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신체적 및 심리적 상실에 대처하는 문제들, 신체상(body image)의 변화, 사회적 신분, 수입능력에의 변화와 또한 종종 이러한 변화들에 수반되는 불안과 비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행동들을 익혀야 할 요구에 대해 대처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각각의 개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해결책들을 발견하고 따라서 장애에 대한 자신의 적응을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제를 항상 마지막 순서로 가볍게 다루어 장애인은 골치아프고 저질이거나 저급하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매스미디어의 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데, 장애는 하나의 외모처럼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주체로써 각종 입법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들이 어떠한 제도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은 일찍이 장애인의 재활을 특수교육과 같이 하나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교육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제정을 통해 고용주가 구직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금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시혜적 성격의 장애인의 등록제 및 정책들을 과감히 폐기하고 강력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면접에서 탈락되는 것과 같은 일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구매력을 높여 재활공학과 같은 분야의 미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장애인이 고용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Ⅲ. 연구결과 분석

1. 일반사항

조사응답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안동이 43.1%, 구미 28.9%, 상주 10.9%, 영주 8.8%, 포항 8.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 54.0%, 여 46.0%로 나타났다. 성별을 장애인 본인과 가족으로 나누어 구분해 본 결과 장애인 본인의 경우 남성이 많이 응답한 반면,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의 어머니나 배우자인 여성이 많이 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22.5%로 가장 많고 40대가 20.1%, 20대 18.7%,

50대 17.7%, 60대 6.3%, 70세 이상 2.0%, 19세 이하 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4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신지체 23.2%, 중복장애 6.3%, 뇌병변장애 6.0%, 정신장애 5.0%, 시각장애 4.4%, 발달장애 3.4%, 언어장애 2.5%, 청각장애 1.9%, 신장장애 0.9%, 심장장애 0.3%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2급 35.1%, 1급 32.1%, 3급 22.4%, 4급 5.0%, 5급 4.3%, 6급 1.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학력은 고졸(일반) 34.9%, 중졸(일반) 16.4%, 초졸(일반) 11.6%, 무학과 고졸(특수) 8.5%, 중졸(특수) 6.9%, 전문대졸 5.8%, 대졸 4.2%, 초졸(특수) 3.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가족은 고졸 45.2%, 전문대졸 15.6%, 중졸 14.8%, 초졸 11.9%, 대졸 7.4%, 무학 5.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 상태는 장애인의 경우 미혼 30.6%, 기혼 24.5%, 별거 2.2%, 이혼 1.3%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가족의 경우 기혼 34.4%, 미혼 6.1%, 이혼 1.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장애 발생시기는 태어난 이후가 64.5%, 태어날 때가 17.1%, 태어나기 전부터가 10.0%, 모름이 8.4%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원인은 교통사고가 23.6%, 감염 및 질병 17.7%, 산업재해 7.5%, 유전 4.6%, 의료사고 4.3%, 약물중독 2.6%, 영양부족 2.0%, 기타 37.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보장구 사용여부는 사용하지 않음이 54.2%, 사용함이 45.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보장구 종류는 휠체어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팡이 14.3%, 의족 9.5%, 의수족 6.3%, 목발 3.2%, 발보조기, 보조기, 보청기, 워커, 의수, 의안, 클러치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가족 수는 3~4명이 59.0%, 2명 이하가 21.2%, 5명 이상이 19.8%로 나타났다. 가족수의 평균은 3.5명으로 이는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3.1명보다 큰 수치로 경북지역 장애인 가족수가 우리나라 평균 가족수보다 0.5명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응답자들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45.8%, 아파트 32.0%, 연립주택 7.2%, 기타 15.0%로 나타났다.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주거형태는 아파트 47.7%, 단독주택 37.1%로 나타나 경북지역 장애인 주택형태와 우리나라 평균 주거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조사대상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의 중소도시들이라는 점에서 납득이 된다. 조사응답자들의 주거상태는 자가 57.7%, 전세 18.1%, 사글세 6.1%, 무료임대 5.8%, 월세 5.5% 기타 6.8%로 나타났다.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주거상태는 자가 54.2%, 전세 28.2%, 월세 14.8%로 나타나 경북지역 장애인의 주거상태가 우리나라 평균 주거상태보다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응답자들의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택평수는 20~29평이 41.8%, 30평~39평 24.1%,

10평~19평 18.6%, 40평~49평 6.1%, 9평 이하 6.0%, 50평 이상 3.4%로 나타났다. 주택평수 평균은 26.1평으로 이는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주택평수 19.1평 보다 큰 수치로 경북지역 장애인의 평균 주택평수가 우리나라 평균 주택평수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방의 수는 3개가 49.7%, 2개가 27.4%, 1개가 10.3%, 4개가 8.2%, 5개 이상이 4.4%로 나타났다. 방 개수의 평균은 2.8개인데 이는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가구 당 방 개수 3.4개보다 경북지역 장애인의 가구 당 방 개수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평수는 크지만 가구 당 방 개수가 작다는 사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응답자들은 차량소유자가 51.4%, 차량 무소유자가 48.6%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의 경우 장애인 본인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장애인 가족의 경우 차량을 소지한 경우가 소지하지 않은 경우의 약 2배 가까이 되었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부동산 재산정도는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00만원~7,000만원 미만이 20.0%,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15.4%, 1억원~3억원 미만이 14.6%, 100만원~1,000만원 미만이 13.6%, 7,000만원~1억원 미만 6.4%, 3억원 이상 5.5%, 100만원 미만이 2.7%로 평균 부동산 정도는 6,649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동산 재산정도는 100만원~1,000만원미만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0만원~3,000만원미만이 21.0%, 1,000만원~2,000만원미만이 18.4%, 5,000만원이상이 10.5%, 3,000만원~4,000만원미만이 7.9%, 100만원미만이 6.6%, 4,000만원~5,000만원미만이 4.0%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균 동산 재산정도는 1,807만원 정도이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200만원미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만원~100만원미만이 20.5%, 50만원 미만이 16.5%, 200만원~300만원미만이 14.0%, 300만원~500만원미만이 9.5%, 500만원 이상이 2.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은 133.5만원(표준편차 108.7)으로 2001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263만원과 비교해 볼 때 경북지역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는 상당히 낮아 절반정도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응답자들의 주소득원은 부모가 38.8%고 가장 높고, 장애인 본인이 24.6%, 장애인 배우자 9.6%, 형제 및 자매 3.3%, 친척 1.7%, 기타 8.3%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거의 대부분 20세 이상 인 점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 지역 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의 지역사회 관련 사항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 12.7%,

주부 8.1%, 단순노무직 6.6%, 농어업 5.1%, 사무직 4.6%, 학생·재수생 3.8%, 서비스 3.0%, 기능직 2.5%, 전문직 2.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족들의 직업유형은 주부 40.9%, 농어업 13.1%, 자영업과 무직이 8.0%, 전문직 6.6%, 기능직 5.1%, 사무직 4.4%,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3.6%, 18세 미만으로 해당 없음 2.2%, 판매직 1.5%, 학생·재수생 0.7%, 기타 2.2%로 나타났다. 장애인 본인의 경우에 약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장애인 가족의 경우 약 41%의 응답자들은 주부였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서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이 12.8%, 사회편견으로 인해 9.6%, 기술이 없어서가 8.5%, 자녀양육 문제로 5.3%, 기타 8.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같은 효과적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사회수는 3회가 22.3%로 가장 많았고, 2회가 21.0%, 1회가 18.1%, 4회가 9.2%, 5회가 8.0%, 이사를 하지 않았거나 6회 이사를 한 경우가 2.9%, 7회 2.5%, 9회·10회가 각각 1.7%, 8회 1.3%로 나타났으며, 11회 이상 이사를 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평균 이사 횟수는 4.1회(표준편차 3.9)로 나타났다. 이사의 주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34.3%로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 문제와 직장문제로 인해서가 16.5%, 주위의 시선 때문 6.7%, 그 외 기타의 이유가 26%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구되지 않은 기타라고 응답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려는 추후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시 불편정도는 불편하다가 66.3%이고 불편하지 않다가 33.7%로 나타났다. 외출 시 불편의 원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수단 문제 28.8%, 편의시설의 부족 16.8%,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2%, 기타의 원인이 4.0%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편견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의 태도도 지금 보다 한층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응답자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 36.6%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 13.5%, 종교활동 8.0%, 독서 7.8%, 스포츠와 라디오 청취가 6.8%, 낚시 5.4%, 등산 5.2%, 사교활동 4.0%, 서예 2.1%, 기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를 지닌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정도는 조금 지장을 받음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지장을 받음이 24.8%, 보통이 12.4%,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음이 13.9%,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이 8.8%로 나타났다.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64.9%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 22.7%보다 두 배 이상으로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 구성원들로 인해 여가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거주지역 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8.7%로 가

장 높았고,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29.9%,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 16.8%, 조금 만족이 10.4%, 매우 만족이 4.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문화/여가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원이 48명인 것에 비해, 불만족이 153명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거주지역 내의 문화와 여가시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들을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조사응답자들의 거주지역 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바램은 장애인 전용시설의 확충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이 23.5%, 대중교통의 확충이 11.9%, 외출 시 봉사자 제공과 이용요금 감면이 9.7%, 의사소통 문제해결이 3.1%,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이 1.9%, 기타가 7.5%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전용시설과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응답자들의 장애인관련 단체 소속여부는 소속되어 있지 않음이 66.4%, 소속되어 있음이 33.6%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장애인 관련 단체 이외의 기타 사회단체나 정당에 소속여부는 소속되어 있지 않음 78.6%, 소속되어 있음 21.4%로 나타나 장애인 관련 단체의 소속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대답으로 중요하다 88.3%, 모르겠다 6.6%, 중요하지 않다 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수당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직접적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장애인 등록의 주된 이유로는 의료보호 혜택 23.7%, 공공요금과 서비스 및 할인 혜택 19.0%, 차량용 LPG사용 14.6%, 장애수당 14.0%, 세제 혜택 6.9%, 기타 19.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도 2.8%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사회인식의 문제, 일반인과 구별이 필요 없어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장애를 인정하기 싫어서, 장애인 아버지의 반대로, 나이가 어려서라고 각각 대답했다. 장애인들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매우 중요하다가 전체 조사 응답자의 50.3%, 보통이다 18.3%, 조금 중요하다 15.2%, 잘 모르겠다 12.5%, 별로 중요하지 않다 3.7%로 나타났다. 극히 일부의 조사 응답자들이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화 시대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점점 신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치 참여가 지금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조사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혜택의 종류는 생활보호 대상자 23.0%, 의료보호 1급 22.2%, 장애수당 21.9%, 의료보호 2급 13.2%, 기타 19.7%로 나타나 많은 수의 조사 응답자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정도는 경사로 시설 28.0%, 장애인 전용 주차장 23.5%, 화장실 손잡이 12.4%, 휠체어 보행복도 확보 10.3%, 전화시설 8.2%, 키 높이에 맞는 접수대 6.1%, 기타 3.8%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을 편의시설이 없다고 7.7%로 나타났다. 장애인 단체 및 재활기관의 담당자와 공무원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친절

하다 45.0%, 사무적으로 대한다 38.4%, 불친절하다 12.2%, 기타가 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도 이 부분에는 개선의 필요와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14.1%, 취업 11.8%, 의료서비스 11.6%, 장애수당 10.8%, 재활시설 6.9%, 질 높은 교육과 훈련 6.5%, 질 높은 보건위생 서비스 5.9%, 교통수단 5.6%, 편의시설 제공 5.1%, 쾌적한 주거 환경 4.5%, 다양한 여가 활동 3.7%, 보장구 및 보조기 3.4%, 장애인을 위한 법률 3.0%, 장애인 단체 2.4%, 냉·난방 시설 1.7%, 재활상담 서비스와 질 좋은 식생활이 각각 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도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이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	빈도	백분율(%)
질 좋은 식생활	14	1.5
쾌적한 주거 환경	43	4.5
냉·난방 시설	16	1.7
질 높은 보건위생 서비스	56	5.9
의료서비스	110	11.6
장애수당	103	10.8
취업	112	11.8
장애인 단체	23	2.4
재활시설	66	6.9
장애인을 위한 법률	29	3.0
교통수단	53	5.6
보장구 및 보조기	32	3.4
편의시설 제공	48	5.1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134	14.1
질 높은 교육과 훈련	62	6.5
재활상담 서비스	14	1.5
다양한 여가활동	35	3.7
계	950	100.0

3.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 결과

1) 필요성과 욕구정도

장애인 삶의 질에 관련된 영역의 필요성과 욕구 강도는 전체 항목 평균값 4.15(표준편차 .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들 중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필요성 및 욕구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①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재정적 지원, ②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③ 장애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④ 직장이 없

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각종 연금 대납, ⑤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무료 대여 및 보급서비스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응답자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물질적인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장애인의 삶의 질의 필요성과 욕구정도 항목

정부의 물질적·재정적 지원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216	72.0
약간 필요하다	44	14.7
보통이다	29	9.7
별로 필요없다	9	3.0
전혀 필요없다	2	0.7
계	300	100.0

장애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87	63.2
약간 필요하다	60	20.3
보통이다	37	12.5
별로 필요없다	11	3.7
전혀 필요없다	1	0.3
계	296	100.0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연금 대납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89	63.9
약간 필요하다	50	16.9
보통이다	44	14.9
별로 필요없다	9	3.0
전혀 필요없다	4	1.4
계	296	100.0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92	64.0
약간 필요하다	68	22.7
보통이다	32	10.7
별로 필요없다	5	1.7
전혀 필요없다	3	1.0
계	300	100.0

보장구 무료대여 및 보급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77	59.6
약간 필요하다	67	22.6
보통이다	45	15.2
별로 필요없다	5	1.7
전혀 필요없다	3	1.0
계	297	100.0

2) 관심정도

장애인 삶의 질에 관련된 관심정도는 전체 항목 평균값 3.94(표준편차 .6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들 중 장애인 삶의 질에 관련된 관심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①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재정적 지원, ②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③ 직장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각종 연금 대납 ④ 장애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⑤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무료대여 및 보급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관심영역은 삶의 질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를 보는 관점

조사 응답자가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체 항목 평균값 2.87(표준편차 .41)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 중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① 장애는 전염되지 않는다. ② 장애인을 친구로 사귀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장애로 인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장애인을 보는 관점 항목

장애와 전염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196	66.2
약간 그렇다	31	10.5
보통이다	39	13.2
별로 그렇지 않다	7	2.4
전혀 그렇지 않다	23	7.8
계	296	100.0

장애인과 나쁜 영향력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131	44.4
약간 그렇다	67	22.7
보통이다	50	16.9
별로 그렇지 않다	30	10.2
전혀 그렇지 않다	17	5.8
계	295	100.0

장애와 도움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58	19.7
약간 그렇다	110	37.3
보통이다	99	33.6
별로 그렇지 않다	16	5.4
전혀 그렇지 않다	12	4.1
계	295	100.0

4) 회귀분석

회귀분석 방법은 흔히 동시적, 위계적,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동시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달엽, 2001).

(1) 경제적 생활

경제적 생활 곤란 정도에 대해 차소유 여부, 종교 성향, 장애등급, 가구의 사용 방겟 수, 그리고 외출시 불편여부를 선형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039$, $F=11.51$, $p < .01$). 차량소지여부가 경제적 생활 곤란 정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출이 불편한 경우와 종교성향, 그리고 장애등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기관

의료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해 성별, 교육수준, 장애등급, 결혼상태를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110$, $F=3.89$, $p < .01$). 의료기관의 이용빈도는 예측변수 중 교육수준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기관의 이용회수는 반대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사 회수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 외출시의 불편여부, 사회단체나 정당 소속 여부, 장애종류, 장애등급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 = .151$, $F=4.984$, $p < .01$). 이사 회수는 장애등급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외출시 불편정도와 장애종류에도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이사 횟수는 적게 나타났다.

(4) 외출시 불편 여부

외출시 불편여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 곤란정도, 이사한 횟수, 교육수준, 장애등급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39$, $F=8.396$, $p <$

.01). 외출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경제적 생활곤란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장애정도나 이사 회수와도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심할수록 외출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생활정도가 어려울수록 외출에 어려움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외출시 불편을 많이 느낄수록 이사 회수가 줄어들어 주거 이전의 자유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회단체나 정당 소속 여부

사회단체나 정당 소속여부에 대해 장애인 관련단체 소속여부,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중요성 인식 정도, 연령, 장애발생원인, 가구의 주소득원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13$, $F=13.60$, $p < .01$). 사회단체나 정당소속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조사 응답자의 가구 소득원이었으며, 부모회와 같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회단체나 정당소속에 관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속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6) 거주형태

조사 응답자의 거주형태에 대해 성별, 장애종류,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 개수를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046$, $F=4.55$, $p < .01$). 거주형태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애종류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방 개수

조사 응답자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개수에 대해 경제적 생활 곤란정도, 가족구성원 명수, 차량소유를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00$, $F=21.269$, $p < .01$).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조사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제적 생활 곤란정도가 어려울수록, 차량을 소지하지 있지 못한 경우일수록 방의 개수가 적게 나타났다.

(8) 차량소유

조사 응답자의 차량 소유 여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 곤란정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거주형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개수를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98$, $F=8.388$, $p < .01$). 차량소유 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생활곤란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사 응답자의 교육정도, 연령,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의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전체 필요성과 욕구 강도

장애인 삶의 질에 관련된 영역의 필요성 및 욕구 강도에 대해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중요성 인식정도, 장애발생시기, 가족구성원 수를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145$, $F=11.732$, $p < .01$). 삶의 질에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구성원의 명수였으며,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전체 관심정도

장애인 삶의 질에 관련된 관심정도를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중요성 정도, 교육수준, 장애발생원인, 가족구성원의 변수로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135$, $F=3.895$, $p < .01$).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들에 대한 관심은 가족구성원의 명수에 유일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장애를 보는 관점

스스로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해 경제적 생활 곤란정도, 외출시 불편여부, 사회단체나 정당의 소속여부,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의 중요성 정도, 장애종류, 가구의 주소득원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386$, $F=12.49$, $p < .01$). 장애를 보는 관점은 장애유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외출시 불편을 느끼는 여부,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생활곤란 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순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외출시 불편을 느끼지 않은 사람의 장애를 보는 관점이 보다 긍정적이며, 경제적 생활 곤란 정도가 적다고 느낄수록 장애를 보는 관점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장애를 보는 관점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장애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일수록 장애인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관련사항 중 장애인들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장애로 인해서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나타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 마련을 통한 근로권 보장과 의료지원 등이 요구된다.

둘째,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대부분 TV시청이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문화/ 여가시설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거주지역 내의 편의시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응답자들이 장애인 전용시설의 확충이나 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를 반증하는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들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 또한 낙인효과와 사회인식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지만, 의료보호 혜택이나 공공요금과 서비스 및 할인 혜택, 차량용 LPG 사용, 장애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장애인 출퇴근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생활 시설의 확충, 장애등급에 관계없는 장애수당 제공 등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 직업훈련 형태의 다양화와 직업성공을 위한 장애인 직장 편의시설,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제공에 대한 요구 등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지원을 한다면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도가 높고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들은 장애인 정치활동과 출마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보다 다소 낮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이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재정적 지원이나 장애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직장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각종 연금 대납 등 경제적인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사항들은 많은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에서 반영된다.

또한,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나 장애유아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질 높은 특수학교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교육 기회의 확대나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매우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교육은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욱 큰 신뢰를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볼 때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개별수준 혹은 종합적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차시켜 분석하여 그 결과들을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시 활용한다면 더욱 차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도용 (1995). 장애인 재활복지의 이념과 목적. 서울: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아·태 장애인 10년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모색을 위한 자료집**, pp. 3-22.
- 나동석 (1992).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활용에 관한 연구. **재활계단논문집**, 1, 3-26.
- 박순일 (1994).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사회복지, 겨울호**, 24-40.
- 서울특별시 (1990).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 신현순 (1985). 장애자에 대한 인식. **성지모음집 (1호에서 100호까지)**. 서울: 서울시장애자종합복지관, 431.
- 윤급섭외 (1995). **사회학의 이해**. 서울: 삼우사.
- 이달엽 (1995).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 토의 I. 대구: 대구대학교 장애인종합연구소: **특수교육 및 재활·복지 전문직 세미나 자료집**, pp. 26-31.
- 이달엽 (2001). 연구와 통계방법.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장인협, 오세란 (1996). **사회복지 체계론 (역)**.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16-21.
- 정기원, 권선진, 계훈방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요 분석: 빈곤의 원인, 복지욕구 및 복지제도 평가**.
- Adler, N. L., & Hendrick, S. S. (1991). Relationships between contraceptive behavior and love attitudes, sex attitudes,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302-308.
- Benshoff, J. J., Fried, J. H., & Roberto, K. A. (1990). Developmental skills attainment among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4, 44-52.
- Boggis, E. L. (1994). Benchmarks of change in the field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V. J. Bradley, J. W. Ashbaugh, & B. C. Blaney(Eds.). **Creating individual suppor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andate for change at many levels**. Baltimore: Paul H. Brookes.
- Bradley, V. J. (1994). Evolution of an new service paradigm. In V. J. Bradley, J. W. Ashbaugh, & B. C. Blaney. (Eds.), **Creating individual suppor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andate for change at many levels (pp. 11-31)**. Baltimore: Paul H Brookes.
- Clanton, L. d., Rude, S. S., & Taylor, C. (1992). Learned resourcefulness as a moderator of burnout in a sample of rehabilitation providers. **Rehabilitation Psychology**, 37, 131-139.
- Kinnier, R. T., Katz, E. C., & Berry, M. A. (1991). Successful resolutions to the career-versus-family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439-444.

- Pedhazur, E. J. (1982).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tch.
- Rodgers, J., & Calder, P. (1990). Marital adjustment: A valuable resource for the emotion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multiple sclerosi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4*, 24-32.
- Shutty, M. (1993). Guidelines for presenting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in Rehabilitation Psychology.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145-148.
- Woehike, P. L., Elmore, P. B., & Spearing, D. L. (1990). *Testing assumptions in multiple regression: Comparison of procedures available in SAS and SP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in Boston, MA.

<Abstract>

Investigating Perceived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Index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Lee, Dal-Yob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eagu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perceived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index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Using a 5-point Likert scale, research participa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were identified. Total of 338 participants were responded, 200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138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pectively.

Man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under the unemployment due to the health problems and lack of family support. One of the important leisure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watching TV, and it is indicative of the necessity of provision of sound leisure time activities, effective communication measure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motivate them for leading an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asked the government for better education services, vocational services,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nd financial supports for pursuing decent living. these issues will and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disability policies and community services in the ares of Kyung-Book Province.

논문접수 : 2004. 11. 20. / 수정본 접수 : 2004. 12. 13. / 게재 승인 : 2004. 12. 26